

# 근대 일본불교 사회사업의 ‘慈善’에 대한 고찰

## — ‘淨土眞宗本願寺派’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諸点淑\*

- |                          |                                 |
|--------------------------|---------------------------------|
| I. 머리말                   | IV. 정토진종본원사파의 사회사업과 ‘자선’에 대한 인식 |
| II. ‘일본형 사회사업’의 탄생과 그 특징 | V. 맺음말                          |
| III.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전개       |                                 |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 사회사업의 ‘자선’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 ‘정토진종본원사파’를 사례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당시 사회사업에서의 ‘자선’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일본 국가권력에 의해 점점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초기 물질적 빈민구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자선적 행위는 감화구제사업의 등장으로 일본국가에 충성하는 良民을 양성하기 위한 자선사업으로 이행되었다. 그 후 서구의 근대사상 유입은 자선을 실천함에 있어 물질적, 정신적 자선의 측면을 모두 강조하게 되었고, 자선과 함께 防貧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이 중 자본주의 사상은 사회사업과 돈이라는 자본의 필연성을 정착시켰고 그 속에서 이익을 추구했던 자선은 위선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 자선은 제국주의 노선에 편승하여 전쟁에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근대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의 근대성을 보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의 자선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창출 내지는 중첩되는 다양한 양상의 ‘자선’을 고찰해야 한다. 이로써 근대적 자선을 둘러싼 일본불교의 또 다른 ‘近代像’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사회사업, 정토진종본원사파, 자선, 자선사업, 감화구제사업, 일본불교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 사회사업의 ‘자선’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 ‘정토진종본원사파’를 사례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일본불교의 근대 사회사업은 서구의 근대사상 유입과 함께 산업화, 일본의 전시현황 등을 반영하며 자선사업, 감화구제사업, 사회사업 등 그 이름을 달리하여 실시해왔다.

이러한 일본불교의 사회사업<sup>1)</sup>과 관련된 연구는 나카니시 나오키(中西直樹), 다카하시 후미토(高石史人), 기쿠치 마사하루(菊池正治)가 집대성한 관련 사료집인 『戰前期佛教社會事業資料集成』 발간으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sup>2)</sup> 이 사료집은 근대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불교 각 종파의 사회사업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성과는 眞宗大谷派, 淨土眞宗本願寺派, 淨土宗과 같은 대표적인 불교 종파에 한정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을 종파별로 총망라하고 그 전체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로써 일본불교의 근대성을 사회사업이라는 활동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사료들을 참고로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을 고찰하는 데 있어 간과 해왔던 일본불교의 자선적 행위의 의미, 바꿔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자선’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자선’이라는 용어는 charity의 일본어 번역어이다. 기독교 사전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사랑을 정의하는 그리스의 아가페의 번역어에 caritas를 빌려, 후에 이 언어가 사랑의 구현 화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자선 행위, 활동으로도 표현하게 되었다.<sup>3)</sup> 일본에서의 ‘자선’활동은 일본의 각 종교에 의해 점점 정착되어 갔지만, 러일전쟁 승리 후 국가 주도의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시체제 협력 등, 일본적인 특수성을 내포한 사회사업으로 정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을 고찰한다는 것은 그 속의 근간이 되는 ‘자선’의 의미

1) 이 글에서는 사회사업을 시기별로 자선사업, 감화구제사업, 사회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복지사업이라는 의미로 사회사업을 의미할 때 시대와 무관하게 사회사업이라 한다.

2)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戰前期佛教社會事業資料集成』, 東京: 不二出版, 2013. 총 13권으로 본연구에서도 본원사파 관련 내용은 이들 자료를 참고하였다.

3) 石井洗二, 「『慈善事業』概念に關する考察」, 『社會福祉學』 55-3, 日本社會福祉學會, 2014, 1면.

규명, 그 행위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대 일본 사회사업의 시작과 그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현황과 그 속에서 '자선'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정토진종본원사파의 사업을 하나의 사례를 들고 그 속에서의 '자선'의 시대적 양상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일본형 사회사업'의 탄생과 그 특징

근대 일본 사회사업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요시다 쿠이치(吉田久一)의 말을 빌리자면, 20세기 초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자선', '자선사업', '감화구제', '감화구제사업', '박애사업', '사회개량', '사회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선사업이 산업혁명기, 감화구제사업은 일본제국주의 형성기에 성립되었고, 자선사업 사상은 러일전쟁 종료기까지, 감화구제사업 사상은 1916년까지로 시기적 구분이 가능하다.<sup>4)</sup>

이처럼 1894년부터 1905년까지를 자선사업, 1906년부터 1916년까지를 감화구제사업, 1917년부터를 사회사업으로서 본다면,<sup>5)</sup> 1905년 이전까지의 사회사업은 주로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전근대적인 사회사업을 의미하게 된다. 그 후의 사업은 1906년 러일전쟁 승리에 편승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을 다져가는 흐름 속에 재편되는 감화구제사업이다. 이 감화구제사업은 현실적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며, 이전의 자선사업이 '사회성'과 함께 '조직화'를 갖추면서 계승되어 나갔다. 하지만, 국가권력 개입의 감화구제사업은 그 이전의 자선사업과는 그 맥을 달리했다. 나카나시는 이러한 특징의 일본 사회사업을 '일본형 사회사업'이라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4) 吉田久一, 『吉田久一著作集6 改訂増補版 日本近代佛教社會史研究』下, 埼玉: 川島書店, 1991, 67면.

5) 石井洗二, 앞의 2014 논문, 2면.

일본의 사회사업은 明治 말에 ‘감화구제사업’으로서 발족했다. 감화구제사업은 자본주의사회 발전에 수반한 사회문제의 현재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단순하게 貧窮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주된 안점은 ‘감화구제’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어쩌면 근대 천황제 국가의 지배체제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는 빈곤층을 敎導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전환 내지는 국익을 위한 희생을 감수시키는 것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의 지도이념으로서 등장한 것이 ‘가족국가’관이었다. ‘가족국가’관은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해 가족주의가 國是화 되고 천황과 국민[赤子]을 부자(オヤコ) 관계로 판단함으로써 가족국가의 복종과 봉사가 국민에게 요구되어 강건한 국민통합의 현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족관계의 변영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一分子로서 중요시하는 관점에서의 困窮民의 보호·구제대책이 기획된 것에 불구하고, 인권사상의 건전한 발달은 모두 탄압받아왔다. 이러한 국가의 방침은 大正기 감화구제사업이 ‘사회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더욱 조직화하여 갔지만, 기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었다.<sup>6)</sup>

일본 사회사업의 특징을 ‘천황 중심의 가족관계’라는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나가니시와 유사한 맥락으로 조경희는 이 시기의 감화구제사업이 ‘자선’을 매개로 국익에 적합한 맞춤형 국민 양성 시스템으로 구축해갔음을 역설한다. 바꿔 말하자면, 사회사업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구축을 위한 하나의 폭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조경희는 이러한 일본 사회사업의 특징을 ‘양민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사회사업이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빈민구제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와 실천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진전된 러일전쟁 이후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대두하는 한편 경찰, 감옥, 구제 등의 내부행정이 일체적으로 확립되어 민중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감화되었다. …… 또한, 일본의 구제이념은 ‘감화’라는 정신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극히 도착적인 형태를 가졌다. 즉 일본의 구제이념은 근대적인 권리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천황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자해도 아닌 천황의 자해를 얻기 위해 정

6) 中西直樹, 『佛敎と醫療・福祉の近代史』, 京都: 法藏館, 2004, 9~10면.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 인용. 참고로 이 글의 모든 일본자료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신적 '감화'를 끊임없이 끌어내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sup>7)</sup>

전술의 나카니시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감화구제사업은 <천황제국가-양민의 육성-구제사업>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맞물려 탄생한 일본의 근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화'가 강조된 '일본형 사회사업'은 개인, 교단 중심의 자선사업과는 다른 국가권력 하의 또 다른 '자선'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후술하는 일본불교 교단의 사회사업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이라는 용어는 charity의 일본어 번역어로, 기독교의 사랑에 근거한 빈민을 구제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이웃사랑의 실천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자선사업' 개념에 대해 고찰한 이시이 센지(石井洗二)는 특히 일본은 1908년 설립된 '중앙자선협회'의 발족을 계기로 각 지역의 복지실천이 자선이라는 이름 아래 조직화되었음을 지적했다. 그 후 전근대 형태의 자선사업의 발전된 단계로서의 중앙복지실천은 자선이나 자선사업으로 불리게 되고, 그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용어로 '慈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시이는 '중앙자선협회' 등장으로 사용하게 된 '자선'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복지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중앙정부 내에서 '자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가 '자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국가에 요구되는 '자선사업'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실천을 '자선'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한 결과물이 중앙자선협회이었던 것이다.<sup>8)</sup>

이상과 같이 '감화구제사업'은 일본 사회사업의 대표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복지사업 내지는 구제 행위는 이에 부합된 '자선'으로 재창출되어 정착해 갔다. 아시아의 제국을 향한 행보는 기존의 개인 내지는 종교단체에서 실시해왔던 전근대적 자선사업을 '일본형 사회사업'으로 전환해 나갔고, 이를 실현에 옮길 기관으로 중앙자선협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핵으로 충성스러운

7) 趙慶喜, 「近代日本の救済觀念をめぐる考察—日露戦争後の『獨立自營良民』概念を中心に—」, 『일본문화연구』 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485면.

8) 石井洗二, 앞의 2014 논문, 4면.

양민을 탄생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사업 시행의 주된 목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더욱 강한 폭력성을 내포하면서 사회사업으로서 구축되어갔다.

### Ⅲ.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전개

明治維新 이후 廢佛毀釋은 일본불교 교단 내부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 더구나 기독교의 등장은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사회사업은 일본불교의 근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일본의 종교적 지형을 위협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廢佛毀釋 하의 일본불교의 입지를 개선하고 근대종교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지형변화와 함께 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탄생한 빈민은 새로운 구제사업의 필요성을 일으켰고, 제국주의 노선의 선두에 선 일본은 사회사업을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였다. 여기에 크게 가담한 것이 일본 종교, 특히 불교였다.

그렇다면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일본의 자선사업은 일찍이 일부의 승려가 교단의 위신회복을 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이미 명치 초기에 각 종파 승려 유지자가 협력하여 의료구호시설인 京都施藥院과 아동복지시설인 福田院을 설치하는 등 실시하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도 종교자와 유력자간 결속한 형태로 상호부조 시스템을 재편한 자선구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중앙에서도 협동하여 자선구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 1890년에 각종 협회가 빈곤자구제를 목적으로 각종협동자선회를 설치하여 1900년에는 각종 管長會議가 조직한 日本大菩提會도 자선사업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다.<sup>9)</sup>

여기서 잠깐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의 초기 자선사업 동향을 살펴보자. 진종대 곡파는 1872년 監獄教海事業을 시작으로 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위문 사업을 실시하였다. 명치 30년대 이후에는 공장포교, 육아사업, 의료·시약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1900년 이후에는 무료숙박소와 직업소개소, 1911년이 되어서야 사회

9)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앞의 2013 자료집, 제1권 各宗波共同編, 1면.

사업단체인 '大谷派慈善協會'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중앙자선협회' 직후에 신설된 것으로 보아 감화구제사업의 성격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또한, 정토종의 경우, 1870년 사원 내 소학교설치를 비롯하여 1880년 빈민구제를 위한 樂善會 설치, 1882년, 빈민신체장해자 자제를 위한 사립교육학교 설립 등 빈민 대상의 쌀 배급, 현금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1903년에는 정토종 교보사에 '淨土宗慈善會'를 설립하여 飢民 救濟의 돈을 모금하는 등 자선활동에서 자선사업으로 정비해 갔다. 그 후 1911년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淨土宗勞働共濟會'를 창설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sup>11)</sup>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불교는 매우 이른 시기에 개인 또는 교단 주도의 자선구제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같은 해 1911년, 진종대곡파는 '대곡파자선협회', 정토종은 '정토종노동공제회'라는 체계적인 사회사업단체를 신설하게 된다. 1911년이라는 일본불교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본 내무성 주최 '감화구제사업강연회'의 참가와 함께 '중앙자선협회'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로써 일본 불교도 '일본형 사회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한편,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빈민의 창출은 일본불교의 기존 자선적 행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불교계 전반에 자선구제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의 의식이 널리 확산한 것은 앞서 언급한 1908년의 '감화구제사업강습회' 개최 때였다. 이 강습회는 일본 정부가 민간의 자선구제사업의 장려육성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었지만, 그 출석자의 대부분이 종교자로 이는 지역사회에 큰 교화력을 가진 사원 승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sup>12)</sup> 또한, 일본불교가 사회성을 띄기 시작한 이 시기는 정신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한 포교전도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아닌 각종 사회문제를 수용한 현실 사회에 중점을 둔 포교가 절실히 요구된 때였다. 요시다는 이 시기의 일본불교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답습한 포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고 예를 들어 자선을 윤리로 보았을 때도 단순한 개인적 시혜가 아닌 일본불교자들은 사회윤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다.<sup>13)</sup> 다시 말하자면, 사회에 어떻게

10) 諸点淑, 『植民地近代という經驗-植民地朝鮮と日本近代佛教』, 京都: 法藏館, 2018, 81-83면.

11) 諸点淑, 앞의 2018 책, 88면.

12)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앞의 2013 자료집, 第1卷 各宗波共同編, 2면.

13) 吉田久一, 앞의 1991 책, 69면.

대응하느냐에 따라 종교의 가치가 결정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불교의 교단 내부의 사정, 사회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만의 일본의 자선사업이 조직화 된 것은 아니다.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은 일본불교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도기에 실시된 일본불교의 자선은 이를 실천하는 자와 종교 교단과의 관계, 또한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창출되어 갔다. 이렇게 탄생 된 일본불교의 ‘자선’은 적어도 감화구제사업 이전의 자선사업에서 볼 수 있었던 자선적 행위와는 그 맥을 달리한다. 이것이 나카니시가 지적한 ‘일본형 사회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 시기의 일본불교의 ‘자선’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불교 중 정토진종본원사파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감화구제사업 설치 전후의 ‘자선’의 의미를 시대적 현황 속에 배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원사파를 사례로 드는 이유는 타 종파보다 가장 먼저 조직적인 사회사업 단체를 구축하고 또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 IV. 정토진종본원사파의 사회사업과 ‘자선’에 대한 인식

##### 1. 1910년대 전후의 사회사업과 ‘자선’에 대한 인식

이장에서는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이 사회성을 띄고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 속 그들이 인식한 자선이 무엇이며, 그 자선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정토진종본원사파의 ‘대일본불교자선회재단’의 내용과 관련 잡지의 내용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정토진종본원사파의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이하 ‘자선회’)는 1901년에 창설된 일본불교 종파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종교자선사업재단이다. 일본 근대의 불교 교단이 종교적 사회적 실천으로서 종파를 내세우고 자선구제 관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표명한 최초 조직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자선회’를 조직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法主를 總裁에 추대하고 전국 각지의 신도 유지자를 설립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된 점에서 기부자도 門末信徒에 제한된

것이 아닌 넓게 자선과 박애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승려보다도 신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굳이 본원사파자선회가 아닌 '대일본불교 자선회'로 명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sup>14)</sup>

한편, '자선회'의 설립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준비위원총대인 아카마츠 렌조(赤松連城)의 다음의 연설문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세상의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져 간다. 또한, 그사이에 알력이 발생하게 되면 점차 사회의 안녕을 방해하여 국가의 禍亂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 서양의 여러 나라에는 이 병해에 고민하는 정치가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였지만, 구제 난관에 대해 종교가(그들에 의하면 주로 기독교도)들은 박애의 교의에 따라 활발한 자선사업을 실시하고 또는 빈민에 일을 주고 또는 고아를 양육하여 난치병의 施療 免囚의 보호 등 다방면으로 진력하고 있는 것은 두드러진 사실이다. 문명이 진보한 일본에서도 오늘날 자선사업의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부터, 각지에는 外教者의 손에 세워진 보육원과 같은 시설도 적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자가 그러한 시설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규모도 작고 충분한 발전도 없고 실로 애석할 따름으로 올해 7월에 개정조약을 실시하니<sup>15)</sup>

'자선회'를 설립한 목적은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다른 종교(여기서는 기독교)는 그들의 종교적 실천에 따라 이미 자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불교자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한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선은 개인 포교자에 의해 실시한 전근대적인 자선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빈민구제라는 측면의 자선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반드시 국가권력과 결부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비매품으로 발간된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要覽』을 참고하면, 1899년 6월 10일 전국의 유력한 신도들을 초대하여 '兩御門跡御親示'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중에 '자선회'의 설립목적과 주된 사업내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즉, '본 재단

14)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戰前期佛教社會滋養の研究』, 不二出版, 2013, 15면.

15) 赤松連城,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設立趣意演說」, 1899, 2~3면. 이 자료는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앞의 2013 자료집, 第3卷 淨土眞宗本願寺派編 ③에 수록된 자료임.

은 불교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자선의 행위를 진흥하고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1. 貧者施療, 2. 孤兒貧兒의 양육 외 一般細民의 교육, 3. 罹災救助, 4. 感化, 5. 포교비 보조, 6. 학교 보조금, 7. 그 외 필요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6)</sup>

역시 비매품으로 발간된 『자선재단설립의 요지(慈善財團設立の要旨)』에는 총론을 포함한 22개의 항목의 자선재단설립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즉, 자본 시장 성장으로 인한 빈부 격차 해소로 자선사업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자선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불교자의 본분이라는 점, 무엇보다 옛 성인들의 말씀을 받들어 자선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과 함께 앞서 언급했던 자선사업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 중 여기에서는 감화사업과 포교비 보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감화사업은 1906년 감화구제사업이 가시화되었던 사업과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포교비 보조를 자선사업에 상정했다는 것은 이는 단순 복지 정책을 떠나 종교세력 확산이라는 종교적 성격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자선사업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감화와 관련하여 「이재구조의 일과 감화의 일(罹災救助の事及び感化の事)」이라는 제목의 다음 기고문을 참고하자.

네 번째는 惡童 感化의 일이다. 최근 가정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집이 많고, 재산이 있는 집에 불량 아이가 있어서 감화사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감옥의 教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본 사찰에서 크게 매진해왔고 오늘날 백여 명의 教誨師를 전국에 파견하고 있다. 各府縣 감옥에는 오로지 죄수들의 잘못을 개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감화사업이라는 것은 이 나쁜 마음이 생겨 감옥에 들어올 만한 나쁜 아이들을,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즉시 教誡하여 불량인 마음을 싹트지 않게 제거하고 선량한 소년이 되게 하여 범죄인의 씨앗을 개조하여 良民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 이 감화사업은 범죄가 싹트기 전에 단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준비라 말할 수 있다.<sup>17)</sup>

16) 赤松連城, 「大日本佛敎慈善會財團要覽」, 1899, 7~8면. 위와 동일한 자료집에 수록.

17) 清水精一郎, 『慈善財團設立の要旨』, 興敎書院, 1901, 107~109면.

이른바 여기서 감화라는 것은 오늘날의 불교에서 일컫는 '教化'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바른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소녀, 소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의 자선적 행위이다.

포교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이는 불교의 본분 사업으로 無敎地에 포교를 하는 데에는 먼저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됨”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는 “본인이 낳은 아이를 생계가 어려워 양육하지 못하고 이를 죽이는” 이러한 “금수만도 못한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가 자칫하면 불량행동을 하는 것처럼”, “악행을 악행이라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耶蘇敎 신자들이 아메리카에서 와서 일본에서 전도하는 비용을 모금”하기도 하는데, “일본에는 종교가 없는 것과 같다”고 개탄한다. 따라서 “불교 승려들은 국민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약간의 비용을 모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교가들의 急務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최초는 자국민에게 포교하고 점차 支那人에게도 서양인에게도 포교하는 것이 편리를 득할 것”이라고 논한다. 마지막으로 자선재단의 자본이 충실하다면 국내외로 포교 전도의 비용 역시 보조 가능함일 것임을 지적하며 포교비 보조를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이 ‘자선회’가 기금 마련에 주력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기금의 사용이 복지 시설과 빈민구제사업에 사용됨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포교활동에 사용됨이 마땅함을 이른바 敎勢 확산에 사용됨이 당연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 ‘자선회’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절에 가서 법회를 열고 불경을 외우는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포교만으로는 더 이상의 교세 확산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근대적인 포교활동, 즉 기독교의 사회사업 처럼 사회문제에 반응하면서 사회사업이라는 포교수단을 취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종교활동이 어려움을 이 ‘자선회’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들이 인식한 자선적 행위의 범주에는 단순한 빈민을 대상으로 한 물질적 구제만이 아닌 신자 확산이라는 종교적 활동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정도로 자선을 기반으로 한 포교활동의 성격이 농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이 시기에 그들이 인식한 자선은, 단순한 빈민구제의 영역을 넘어선 종교활동의 또 다른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선의 재원이 되는 기금과 장려금을 모으기 위해 교단은 전국 각지에

18) 清水精一郎, 앞의 1901 책, 126~132면.

승려를 파견하고 주로 그들을 통해 취지를 전달시키기도 하였다.<sup>19)</sup>

다음은 교단의 기관지인 『慈善團報』를 통해 자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잡지는 1903년에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나 현재 1909년부터 1915년까지만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의 ‘자선회’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없지만, 본 재단에서 발행하고 있어 ‘자선’에 대한 교단 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 판단된다. 이 잡지의 주된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부금 명세 내용 보고, 자선에 대한 교단 내외의 동향을 전하고 있으며 참고로 1년에 1회 발간하고 있다.

1909년 1월에 발간된 잡지의 목차를 볼 것 같으면 논설을 시작으로 ‘자선회’의 기부행위, 역사, 기부금 납부명세(이자명세 포함), 재단의 임원 이동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자선의 급요(慈善ノ急要)」라는 논설에서는 감화와 구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감화는 민심의 불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구제는 재산의 결핍을 구하는 것”으로 이 둘은 “산업 도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 양자를 잘 조합한다면 “감화라고도 할 수 있고 구제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른바 이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급무로써 자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에 감화법의 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10년 전부터 설립된 ‘자선회’는 이를 위해 “국가에 대한 忠良을 다하고 종문에는 報謝의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0)</sup> 설립 초기의 빈민구제를 위한 재단의 설립목적이 ‘감화’라는 측면에 크게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중앙자선협회’의 다음 해로 ‘국가에 대한 충량’이라는 언급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익’이라는 것이 ‘자선’의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인 1910년 「국가사회의 병독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가(國家社會ノ病毒ハ如何ニ治療スヘキ乎)」라는 논설에서는 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는 외과적 수술, 재단은 내과적 수술에 충실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국가는 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 최상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건전한 分子를 보호하고 이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의 복리를 해치는 불건전한 분자를 치료하고 충분히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병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내과적 치료와

19)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앞의 2013 책, 16면.

20) 赤松連城, 「慈善ノ急要」,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09, 2~3면.

외과적 수술로, 외과적 수술은 경찰력과 감옥을 이용하여 범죄의 病毒 蔓延을 방어하고, 내과적 치료라는 것은 免囚保護院, 惡少年感化院, 보육원, 양로원, 시료병원, 貧民授産所矯風會와 같은 것이다.<sup>21)</sup> 이는 유지단체의 힘을 빌려 가능한 것으로 실로 종교단체, 즉 대일본불교자선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다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sup>22)</sup>

국가의 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외적 역할, 종교단체는 내적 역할을 다 했을 경우 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사회 공헌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선의 국가적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경찰의 범죄자와 같은 사회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 정책적 관리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자선사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종교단체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간다는 것이다. ‘자선’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구제시설 운영은 국가사회의 병독을 치료하는 이른바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1911년의 논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의 근본은 자비에 있다(道德ノ本源は慈悲ニアリ)」에서는 “불교자선재단의 주된 뜻은 사회 각인의 자비심을 催發하여 義損하여 빈약하고 늙고 병든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인류의 천직으로 알고 동포를 구하고 德義를 가지고 社界의 공익을 도모하고 자타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임을 논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덕의 근간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불교 확장의 資助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3)</sup>

한편 1912년 논설에는 사회사업과 관련된 미국의 관련 대학시찰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선회’가 위탁받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설문에서는 「구미 자선구제사업의 근본주의(歐米における慈善救濟事業の根本主義)」라는 제목으로 자선의 광의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종래의 자선은 단순하게 被救者의 현상을 불쌍히 여겨 의식주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구미 개인주의 현저한 발달과 실업의 놀라운

21) 藪田宗恵, 「國家社會ノ病害ハ如何ニ治療スヘキ乎」,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0, 1면.

22) 藪田宗恵, 앞의 1910 논문, 6면.

23) 藤島了稔, 「道德ノ本源は慈悲ニアリ」, 『慈善團報』, 京都: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1, 5~6면.

勃興은 크나큰 빈부의 격차를 만들었고, 따라서 窮民을 구제하는 것은 종래 자선의 취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따라서 자선의 목적에는 困窮을 구함과 동시에 또한 곤궁을 예방하는 2개의 방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sup>24)</sup> 첫째, 자선하는 마음을 지도하는 과학적 지식, 둘째, 수용구조와 자택구조라는 다방면의 자선을 고려, 셋째, 자선단체의 연합의 필요성, 넷째, 대학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빈민구제를 위한 복지실천은 국가와 종교 교단 간의 문제로 인식해왔지만, 자선을 실천하는 범주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전 예방의 防貧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사업 현황 시찰을 통한 서구의 사상적 배경을 근간으로 자선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는 ‘자선’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sup>25)</sup>

大正기에 넘어와서는 잘못된 자선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많이 확인된다. 「자선의 본지(慈善の本旨)」라는 논설에서는 자선의 본뜻에 상반되는 자가 많아졌음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자선의 본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것을 施興하여 후회하지 않고 이로 인해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명예를 바라지도 않고 利養을 취하지도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있으니 오늘날 사회 자선가를 관찰하면 이 자선의 본뜻에 상반되는 자가 넘쳐나니 개탄할 따름이다.<sup>26)</sup>

이어, 자선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자선이 아니며, 자선의 본뜻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상업적인 것으로 자선의 본뜻이 ‘이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선가라 칭하는 자들은 모두 ‘이기주의자’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적어도 기고자가 인식한 자선은 서양의 이타주의 사상에 근거한 빈민구제로, 이와 상반된 자선에 대한 이익과 보상을 바라는 선한 자선의 탈을 쓴 자선가는 잘못된 자선임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자선에 대한 선과 악의 경계를 제시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자선과 나쁜 자선의 기준이

24) 谷川義男, 「歐米における慈善救済事業の根本主義」,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2, 2~3면.

25) 谷川義男, 앞의 1912 논문, 4~12면.

26) 藤島了穩, 「慈善の本旨」,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3, 1~3면.

서양의 '이타주의', '이기주의' 사상으로 이는 서구 사회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논조는 같은 저자 1914년의 논설인 「지상의 도덕과 실제의 행위(紙上の道徳と實際の行爲)」<sup>28)</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선과 자선(僞善と慈善)」이라는 기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위선과 자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선의 행위는 자선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 이를 행할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든가 명예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불교자는 자선사업을 방편으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선에 반하는 위선이다.”<sup>29)</sup>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자선의 선과 악의 내용으로 <자선=선, 위선=악>이라는 공식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자선은 그 자체만으로 ‘선’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기고자가 인식하는 ‘자선’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자선 그 자체만으로도 ‘선’이 된다는 점이다. 즉 내포의 의미 안에 국가권력이라는 ‘폭력성’이 함축되어 있어도 그들은 ‘자선’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선 구도가 1920년 이후에도 사회사업으로 계승되어 간다.

## 2. 1920년대 이후의 사회사업과 '자선'에 대한 인식

한편, 자선사업, 감화구제사업에 이어 일본의 사회사업은 1918년 米騒動을 계기로 大正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산업화와 전쟁에 따른 치솟는 물가와 이로 인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는 곧 사회문제로 확산해 갔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내무성에는 이를 담당하는 사회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회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로 정착해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불교 각 종파도 중무조직 안에 ‘사회과’를 설치하게 되고 본원사파에서도 1922년 사회과 규정을 발표하고 사회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27) 藤島了穩, 앞의 1913 논문, 2~3면.

28) 藤島了穩, 「紙上の道徳と實際の行爲」,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4, 1~6면.

29) 藪田宗恵, 「僞善と慈善」, 『慈善團報』, 京都: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4, 12~13면.

歐州의 大戰은 당연히 思想界의 大動요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드물게 혼란을 불러일으켜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사회조직의 결함은 폭로되고 각종 사회시설의 시급함을 요구받으니 본파 본원사에는 派內사회사업의 통일진흥을 기획하고 시대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 사회과를 신설함에 이르러 규정을 발표하게 되었다.<sup>30)</sup>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함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떠했을까? 1927년 『사원과 사회사업(寺院と社會事業)』의 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사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사업 개념이 정착하기 전에는 사회의 진화와 인간사상의開展에 따라 각 사업은 적어도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선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이다. 그러나 이 세 개 사업들은 시대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내용에 획일적인 구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각 사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데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sup>31)</sup>

위의 문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정확한 시기적 구분은 힘들다 하더라도 자선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이라는 역사적 문맥은 요시다가 언급한 오늘날의 사회사업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의 의미를 기고문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자선사업이란, “자선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同情惻隱의 情心보다 惠與의 형식으로 사회의 약자빈자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이라 논한다. 또한 “자선사업이 그 대상을 개인의 貧을 救治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물질적 만족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구제사업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施與의 피상적 구제를 하는 자선이 아닌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얻는 수준으로까지 유도하는 것”이라 언급한다. 나아가 구제는 “단순한 자선보다 그 이상으로 사회공동생활에 공헌하는 것”으로, “사회적 보호, 공동체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빈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의 내포적 의미의 큰

30) 本派本願寺社會科, 『本派本願寺社會事業便覽』, 一成堂, 1922, 1면.

31) 本派本願寺社會科, 『寺院と社會事業』, 社會部, 1927, 2면.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연대 사상이 사회사업의 관념을 이루는 것”이라 하고, 이는 “각자는 사회에 대해 등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회에 발생한 약자빈자에 대해 救治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이러한 관념은 사회사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자선과 구제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32)</sup>

이른바, 이상의 <자선사업→구제사업→사회사업>이라는 단계 속에서는 자선적 행위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선적 행위의 중점이 <물질적→정신적→사회연대>로 인식이 더욱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 중심의 물질적인 제공의 자선적 행위가, 국가개입의 감화구제사업 이후에는 충성스러운 양민 양성이라는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고 사회사업 이후에는 개인과 국가의 연대감을 강조하여 나카니시가 언급한 ‘일본형 사회사업’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해 본원사 사회부에서 발행한 『사회사업의 기초(社會事業の基調)』에서 후지오토 토크닌(藤音得忍)은 근래 사회사업의 근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보이며 사회문제를 제대로 알고 사회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후지오토가 언급하는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여러 사회계급 사이에 사회 전체의 진보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불건전한 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sup>33)</sup>라는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주의 기초 위에 서서 사회적 病害矯正을 위해 실시할 각종 정책 중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정의하자면 사회사업은 사회연대의 관념 아래 인격 가치의 평등을 믿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향상하기 위해 또는 그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sup>34)</sup>

필자는 이 기고문에서 사회정책은 국가가 행정 또는 입법에 따라 실시됨을 언급하

32) 本派本願寺社會科, 앞의 1927 글, 4~6면.

33) 藤音得忍, 『社會事業の基調』, 本派本願寺社會部, 1927, 2면.

34) 藤音得忍, 앞의 1927 글, 35~36면.

는데,<sup>35)</sup>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에 사회사업의 기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사업의 사회연대 측면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사회사업의 중심에 다른 아닌 국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국은 사회사업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러한 양상은 그 이후에 더욱더 농후해져 간다.

다음으로는 사회사업 후반기에 해당하는 昭和 10년대 이후의 사회사업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자선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겠다. 참고로 사회사업과 관련된 이 이후의 관련 자료는 필자가 더 확인할 수 없어 1935년 발행된 『本願寺派社會事業協會發會式 本願寺派全國社會事業大會記錄』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같은 해 4월 12일에 사회사업관계자를 불러 개최된 대회의 기록을 담아 놓은 것으로 사회사업과 관련된 정보 교환과 연대를 목적으로, 당시의 사회사업에 대한 교단 관계자의 인식과 사회사업의 현장의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로 판단된다.

이 대회를 개최한 취지로는, 사회사업의 발달과 함께 관련 법도 제정되고 하였으나 사회사업 종사자들의 불교에 기조 한 근본정신이 아직 부족하고, 또한 본원사는 다른 종파와는 달리 재단설립과 함께 사회사업의 역사도 오래되었음에도 담당자 간의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6)</sup>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본원사파 내 사회사업진흥에 관한 건’, 두 번째가 ‘본원사파 사회사업 연락에 관한 건’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사업과 관련된 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사실상 관련된 논의보다는 현장 관계자의 불만 사항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사회사업종사자 즉 승려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작년 2월부터 佐世保에 가서 2개의 탁아소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중사원 및 신자의 사회사업에 관한 관심이 매우 희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일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 관계자와 사원 주직 및 신자의 사회사업에 대한 생각

35) 藤音得忍, 앞의 1927 글, 34면.

36) 本派本願寺社會部의, 『本願寺派社會事業協會發會式 本願寺派全國社會事業大會記錄』, 教務國社會部, 1935, 14면.

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인식이 '불교도도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무래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sup>37)</sup>

또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관계자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임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지금까지 본산의 관계자로부터 각 사원 주직이 아직 사회사업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다, 그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산의 관리자인 각 교구 管事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 어떠한 보조도 지도도 해주지 않으며 격려의 말도 해주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 일요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보조금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단히 사회사업에 대해 무관심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 이 방면에 대해서 각 사원의 주직 및 신도가 무관심한 것이라면 말하자면 그 관리자가 열심히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산 방면에서도 관리자분들에게 이제 사회교육, 사회사업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사람을 선발하여 파견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sup>38)</sup>

이러한 자선을 실천하는 실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이 매우 시급함에 동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 현장에서의 실무자들의 '자선'적 행위는 앞서 기고문에서 살펴보았던 자선에 대한 인식과는 큰 차이가 보인다. 즉 자선에 대해 변화되는 인식은 어느 정도 시기별로 정착이 되어 가나, 그것이 현장의 실무자에게 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불교도도 (기독교처럼-필자)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막연한 의무감 내지는 이익과 명예를 좇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선'이 현장의 실무자들 간에는 일반화되어 그들에게 자선은 이제는 빈민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선으로는 인식이 되어

37) 本派本願寺社會部외, 앞의 1935 책, 12면.

38) 本派本願寺社會部외, 앞의 1935 책, 13면.

있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사회사업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역시 참가자들에게는 공통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다.

재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생각해온 부분입니다만, 뭐라고 해도 사회사업을 진흥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가 문제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東京에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동향을 보자면 구세군은 일 년에 이십만 원의 사회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는 본부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극기주간, 감사제에서 이십만 원의 돈을 모금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경방면에서는 사회사업이라 하면 구세군, 구세군이라면 사회사업이라는 것처럼 모든 방면에 진출해 있는 것입니다. …… 하나의 특별한 주관을 만들어 그것이 사회사업에 사용할 돈이라는 의미로 일 년에 일 주간 정도 사회사업을 위한 간곡한 뜻을 모으는 것을 계획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sup>39)</sup>

이상과 같이 재원에 대한 시급함을 기독교의 구세군처럼 모금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사업=재원>이라는 인식이 이미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사업 자금이 없으면 사회사업을 더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발달로 파생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적 행위가 이제는 재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 편승하여 버린 ‘자선’ 사업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연이은 전쟁은 일본 국내의 사회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후생성 설치의 건강한 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사회사업의 위생 부분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사회사업 역시 후생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사업 내용은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 보호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쟁에 총동원하는 체제로 모든 것이 바뀌어 갔다.

일본불교 역시 이러한 흐름을 빚겨나갈 수 없었다. 이 시기의 본원사의 사회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1940년 본파본원사교무부에서 발간한 기고문 「군인원호와 총후의 교화(軍人援護と銃後の教化)」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 기고문은 군사보호

39) 本派本願寺社會部외, 앞의 1935 자료, 17면.

원후호국 지도과장인 다카하시 토시오(高橋敏雄)가 집필한 것으로, 이 자료를 정리한 기쿠치 마사하루는 잡지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불교 교단의 전쟁협력 사상을 넓게 보급하기 위해 간행한 것으로 이러한 종류의 간행물은 모든 불교 교단에 의해 많이 발간되었고 불교사원 관계자나 門末 檀信徒의 전쟁의식을 고양하고 철저한 銃後耐乏생활을 도모하였다. 군부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불교교단의 각종 강습회의 강사로서 출석 내지는 간행물 집필을 하는 등 불교계와 관계를 맺고 모든 기회를 통해 군인(군사) 援護事業으로의 불교자의 협력을 요청했다.<sup>40)</sup>

그렇다면 이 기고문에서는 어떠한 요청들이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원에는 부속부인회 또는 일요학교·탁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여 부인들에게 (軍事援護의 사상-필자) 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 적합한 軍事援護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치원 아동에게 보여줄 다양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반드시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援護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sup>41)</sup>

이상과 같이 이 시기의 사회사업은 더 이상의 구빈, 방빈사업은 아니었다. 이러한 후생사업 속의 '자선'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쟁을 위한 군사력 유지 및 확장에만 몰두되었고, 사회사업 진흥을 위한 고민, 실무자들의 자질에 대한 고민, 재원에 대한 고민 등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자선'의 행방은 제국주의 노선에 편승하여 전쟁에 협력하는 그러한 성격이 농후한, 다시 말해 제국주의의 폭력성이 가미된 새롭게 창출된 일본불교의 '자선'이었던 것이다.

40)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앞의 2013 책, 125면.

41) 高橋敏雄, 「軍人援護と銃後の教化」, 『興亞生活教本』, 本派本願寺教務部, 1940, 120면.

## V. 맺음말

이상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의 ‘자선’에 대한 의미를 정토진종본원 사파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일본의 사회사업은 1906년 성립된 감화구제 사업에서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사업의 특징을 ‘일본형 사회사업’, ‘양민의 육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기 복지사업 내지는 구제 행위는 이에 부합된 ‘자선’으로 재생산되어 정착해 갔다. 일본불교 역시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 고찰한 정토진종본원사파의 자선에 대한 인식 및 그 의미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 전후의 본원사파의 사회사업은 1901년 신설한 대한불교자선회재단을 시작으로 정착해 갔다. 이때의 설립된 배경은 기독교를 의식하면서 빈민구제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사업내용에 포함된 감화사업은 교화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의 권력이 반드시 개입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국가의 감화구제사업이 설립된 그 후로는 감화사업은 명확히 구제라는 개념과 분리를 하고 있었다. 즉, 감화는 민심의 불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구제는 재산의 결핍을 구하는 것으로, 이 둘의 불가분의 관계야말로 ‘자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자선’은 국가권력이 투영된 ‘자선’이었다. 1910년 이후에는 ‘자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담론이 등장한다. 빈민구제에서 ‘방빈’이라는 ‘자선’의 확장된 의미와 함께 서구의 이타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사상의 영향으로 자선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도도 등장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이후는 <자선사업→구제사업→사회사업>이라는 사회사업의 역사적 구분을 명백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 차이를 <물질적→구제사업→사회연대>라 언급하고 있다. 이때 사회연대는 국가 주도의 연대를 의미하며, ‘자선’이란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자선’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실무자들은 기독교처럼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또는 이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자선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단본부의 담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현장에서 인식하는 ‘자선’은 의무감 내지는 이익 추구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자선적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사회사업에 있어 재원을 중시하는 인식은 자본주의에 편승한 자선의 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전시체제에 접어드는 1940년대 이후의 자선은 오로지 전쟁을 위한 군사력 유지 및 확장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더 이상의 구빈, 방빈사업은 아니었다. 이때 자선의 행방은 제국주의 노선에 편승하여 전쟁에 협력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폭력성이 가미된 제국불교의 '자선'이었다.

이상과 같이 근대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의 '자선'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 시기의 자선을 오늘날의 빈민구제라는 현재적 관점만으로 바라보았을 때, 당시의 일본불교 사회사업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잣대는 자선이라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폭력성까지 빈민구제로 포장해버려 선한 '자선'만 보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 하의 자선만을 강조했을 때 그 안에 함축된 빈민구제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 자체로 악한 '자선'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단일적, 이분법적 잣대로는 근대의 일본불교의 자선활동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일본불교의 '자선'이라는 근대성을 보는 것은 현재적 관점의 자선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변화 내지는 중첩되는 다양한 양상의 자선을 고찰해야 한다. 이 또한 근대적 자선을 둘러싼 일본불교의 또 다른 '근대'인 것이다.

## 참고문헌

- 吉田久一, 『吉田久一著作集6 改訂増補版 日本近代佛教社會史研究』下, 埼玉: 川島書店, 1991
- 中西直樹, 『佛教と醫療・福祉の近代史』, 京都: 法藏館, 2004
- 中西直樹・高石史人・菊池正治, 『戦前期佛教社會事業資料集成』, 東京: 不二出版, 2013
- \_\_\_\_\_, 『戦前期佛教社會滋養の研究』, 不二出版, 2013
- 諸点淑, 『植民地近代という経験-植民地朝鮮と日本近代佛教』, 京都: 法藏館, 2018
- 清水精一郎, 『慈善財團設立の要旨』, 興教書院, 1901
- 本派本願寺社會科, 『本派本願寺社會事業便覽』, 一成堂, 1922
- \_\_\_\_\_, 『寺院と社會事業』, 社會部, 1927
- 本派本願寺社會部 외, 『本願寺派社會事業協會發會式本願寺派全國社會事業大會記錄』, 教務國社會部, 1935
- 趙慶喜, 「近代日本の救濟觀念をめぐる考察-日露戦争後の『獨立自營良民』概念を中心に-」, 『일본문화연구』 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 石井洗二, 「『慈善事業』概念に關する考察」, 『社會福祉學』 55-3, 日本社會福祉學會, 2014
- 赤松連城, 「慈善ノ急要」,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09
- 藪田宗惠, 「國家社會ノ病害ハ如何ニ治療スヘキ乎」,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0
- \_\_\_\_\_, 「偽善と慈善」,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4
- 藤島了穩, 「道德ノ本源は慈悲ニアリ」,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1
- \_\_\_\_\_, 「慈善の本旨」,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3
- \_\_\_\_\_, 「紙上の道德と實際の行爲」,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4
- 谷川義男, 「歐米における慈善救濟事業の根本主義」, 『慈善團報』, 大日本佛教慈善會財團, 1912
- 高橋敏雄, 「軍人援護と銃後の教化」, 『興亞生活教本』, 本派本願寺教務部, 1940

# Study of 'Charity' of Japanese Buddhist Social Work in Modern Times — With Jodo Shinshu Hongwanji-ha's Social Work as an Example

Je, Jum-suk

This study investigated 'Jodo Shinshu Hongwanji-ha' as an example, concerning the meaning of 'charity' of the times in Japanese social work in modern times. As a result, the charity of the social work showed increasingly changing aspects by the social problems and the power of the state heading for imperialism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The charitable conduct that started based on the so-called material relief of the poor in the early stage shifted to the charitable work to foster civilians loyal to Japan with the appearance of reformatory relief work. Later, the inflow of modernism of Western countries came to emphasize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aspects of charity in practicing charity, and the importance of poverty prevention was also caused along with charity. Above all, capitalist ideology settled the inevitability of social work and money, financial resources, and charity that would seek a profit in it was also perceived as hypocrisy. Entering the war basis, it was changed into the charity to cooperate in the war, taking advantage of the imperialist line. To look at the modernity of Japanese Buddhist social work in modern time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harity in various aspects newly created or overlapped with the times like this.

Key Words : Social work, Jodo Shinshu Hongwanji-ha, Charity, Charitable work, Reformatory relief work, Japanese Buddhism

